

# 청소년의 도덕적 사례분석행동과 도덕적 고양의 관계

강인구(姜仁求)\*

## 논문 요약

도덕적 고양은 긍정적 도덕정서로서 타인의 도덕적 선행을 목격하였을 때 가지게 되는 정서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사례제시 유형별 분석활동이 도덕적 고양을 유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어떠한 영향에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실험대상은 초등학교(N=71)와 중학교 학생(N=111)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기간은 2개월 간이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3개 학급을 도덕적 사례만을 경험한 긍정반,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를 경험한 긍정부정반, 비도덕적 사례만을 경험한 부정반으로 구분하여 도덕적 고양경험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도덕적 사례만을 경험한 긍정반이 비도덕적 사례만을 경험한 부정반에 비해 전반적으로 도덕적 고양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긍정부정반도 부정반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도덕적 사례를 많이 경험할수록 도덕적 고양의 증진되며, 도덕적 사례가 혐오감에 의해 도덕적 각성을 유발하는 비도덕적 사례보다 도덕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도덕적 고양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되고 이를 실제교육현장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도덕적 고양, 고양, 도덕정서, 도덕심리, 도덕교육, 긍정정서

## I. 서론

최근 넬슨 만델라가 타계하였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존경과 애도를 표했다. 그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의 배경은 그의 삶이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인물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자신의 도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학교교육과정, 서적이나 매스컴,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대는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은혜롭고 관대한 사람을 목격하여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를 도덕적 고양(moral elevation)이라고 한다(Haidt, 2003; Schnall, Roper, & Fessler, 2010; Thomson & Siegel, 2013).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 심리학 운동(Seligman & Czikszentmihalyi, 1999)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는 Haidt(2000)가 행복과 구별되는 긍정적인 도덕정서로서 도덕적 고양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가설을 기초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정서를 세분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포괄적 정서로 여겨 그동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Fredrickson(1998)은 긍정적인 정서가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이론화도 부족하고,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정적 정서는 안면표정에서 구별되는 특징으로 여러 정서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긍정적 정서는 안면표정에서도 단일 특징을 지닌 정서로 취급하여 영역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aidt(2000)도 Fredrickson(2000)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확장 수립 모델(Broaden and build model of positive emotions)을 인용하여 긍정적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인간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기제이지만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덕적 고양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최근에도 Algoe와 Haidt(2008)는 도덕적 고양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가 행복이라는 정서범주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연구가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행복과 구분하여 도덕적 고양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고양연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도덕적 고양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실험연구들(Aquino, McFerran, & Laven, 2011; Cox, 2010; Diessner et al., 2013; Landies et al., 2009; Schnall, Roper, & Fessler, 2010; Thomson & Siegel, 2013; Vianello, Galliani, & Haidt, 2010)에서 도덕적 고양은 긍정적인 도덕정서로서 실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인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실험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몇 학자들은 도덕적 고양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Haidt(2003a)의 연구에서 동양인인 인도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테레사 수녀에 대한 뉴스를 보여주고 도덕적 고양을 경험했는가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서양인과 같이 일본인과 인도인 모두 유사한 도덕적 고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여러 후속 연구(Algoe & Haidt, 2009; Cox, 2010, Schnall, Roper, & Fessler, 2010; Vianello, Galliani, & Haidt, 2010)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Thomson과 Siegel(2013)은 자신들의 연구의 제한점으로 동양인을 대상으로 고양을 연구한 유일한 연구인 Haidt(2003a)를 언급하며,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가 자신들의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서구문화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고양을 유발하는 도덕적 사례가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문화권에서 도덕적 고양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들이 학교 현장의 도덕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구한 사례가 없으며, 주로 임의로 표집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소년기가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고 학교교육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도덕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도덕적 고양에 감사나 감탄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에 비해 실제적으로 타인의 돕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동기화하고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Schnall, Roper, & Fessler, 2010; Thomson & Siegel, 2013; Vianello, Galliani, & Haidt, 2010)에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학교현장에서 실험적 증거는 학교교육에서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고양은 이타적인 사람을 목격했을 때 생성되는 도덕정서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덜 경험한 사람에 비해 도덕적 고양을 더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도덕적 사례를 접하였을 때도 유발되는 분노나 혐오감도 도덕적 각성을 유발하여 도덕적 행동을 유발한다(Haidt, 2003b).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도덕적 고양의 생성여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고양을 유발시키는 도덕적 사례 경험과 분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사례 경험 간에 친사회적이고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분석하여 도덕교육에서 긍정적 정서인 도덕적 고양에 중요하며 고양을 유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덕적 사례 혹은 비도덕적 사례 분석 행동이 도덕적 고양의 경험정도와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도덕적 사례 유형에 따라 도덕적 고양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사례 유형에 따라 도덕적 고양과 관련 있는 육체

적 감각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고양이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사례유형 경험에 따라 도덕적 혹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긍정적인 정서로서 도덕적 고양

Fredrickson(1998; 2000)은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의 영역이 이론적 혹은 연구 성과에 의해 세분화되지 않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현상인 안면표정에서도 부정적인 정서에서는 다양한 표정구분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정서에서는 미소와 같은 안면근육의 작용 정도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정서에 대한 확장 수립 모델(Broaden and build model of positive emotions)을 제안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 정서가 순간적인 사고-행동을 확장시켜주고 육체적, 지적,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고양은 타인의 모범적인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이다. 도덕적 고양이란 혐오감과 상반되는 도덕적 미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도덕적으로 심미적인 정서이다(Diessner et al., 2013; Haidt, 2006). 그리고 도덕적 고양이란 주관적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주의와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Haidt, 2000).

도덕적 고양과 같이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는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Algoe & Haidt, 2009). 그러나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도덕적 고양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적 고양은 경외심의 한 부류로 볼 수도 있다(Keltner & Haidt, 2003). 과거 Lazarus(1991)의 경우 고양을 놀라움과 혼재되어 종종 부정적인 경험으로 보고도 있지만, 최근에는 도덕적 고양을 긍정적인 정서로 분류하고 있다. Haidt(2003)는 네 가지 부류로 도덕 정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고양을 긍정적인 정서인 감사, 감탄과 같은 타인 칭찬부류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세 부류는 타인비난부류(경멸, 분노 등), 자아의식부류(수치심, 당황 등), 타인고통부류(동점심 등)이다.

Gray와 Wegner(2011)는 중축을 도움(help)차원과 해로움(harm) 차원, 횡축을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agent)와 수동적인 행위를 하는 수동자(patient)로 구분하여 도덕정서를 구분하

였다. 이 차원에서 도덕적 고양은 영감과 함께 영웅이나 위인에 의해서 유도되는 도덕정서로 종축은 도움, 횡축은 행위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은인에 의해 유도되는 행복은 종축에 도움, 횡축에는 수여자에 포함되어 다른 영역에 구분되었다. 따라서 행복영역에 도덕적 고양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고양의 행복이라는 긍정적 정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른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Haidt, 2000)과도 일치한다.

Algoe와 Haidt(2009)는 도덕적 고양을 감사, 감탄, 그리고 행복정서영역인 기쁨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적 고양은 육체적인 감각에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감사와 감탄은 육체적인 감각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도덕적 고양과는 다른 육체적인 감각 특성을 보였다. 도덕적 고양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선행을 베푼 사람을 목격하였을 때 가지는 긍정적 도덕정서이지만, 감사는 자신의 은인에게 집중하여 보답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감탄은 타인 칭찬, 성공을 위한 노력에 치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고양과는 다른 동기변인을 가지고 있었다. Algoe와 Haidt(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유인가, 육체적인 감각, 동기영역의 주요특징을 발췌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고양, 감사, 감탄, 행복의 주요 특징

	고양	감사	감탄	행복(기쁨)
유인가	미덕의 기준을 초과하는 타인들	관찰자를 위해 좋은 행실을 보인 타인들	재능 혹은 기능 기준을 초과하는 타인들	하나의 목표를 행하거나 성취 성과
육체적인 감각	가슴이 따뜻함	예측할 수 없음	활력이 있음	활력이 있음
동기	좋은 행동함,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함	은인에게 보답, 은인을 공적으로 칭찬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 타인 칭찬	축하, 열정 소비, 좋은 감정을 타인에게 말함

Schnall, Roper, 그리고 Fessler(2010)는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도덕적 고양을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비디오 클립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고양조건집단은 유명인이 자신의 멘토에게 감사하는 오프라 윈프리쇼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즐거움조건집단은 영국 코미디 프로그램인 "Fawlty Tower"의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통제집단은 에딘버러 경이 해설하는 바다에 관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 결과 오프라윈프리 쇼를 본 고양조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뚜렷한 도덕적인 정서반응을 보였으며, 가슴이 따뜻해지고 낙관적인 인간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 도덕적 고양에 대한 뇌영상 연구에서(Englander, Haidt, & Morris, 2012; Immordino-Yang,

McColl, H. Damasio, & A. Damasio, 2009; Immordino-Yang & Sylvan, 2010). 미덕에 대한 감탄과 기능에 대한 감탄은 다른 패턴을 보이며, 도덕적 고양은 뇌 영상 분석 결과 감탄과는 다른 영역에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덕적 고양은 선행을 배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을 때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로,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정서이며, 타인의 행동을 목격하여 나타나는 감사와 감탄과도 다른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고양을 경험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서인 반응은 가슴이 따뜻해지고,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 2. 도덕적 고양과 도덕적 정서 및 행동의 관계

도덕적 고양은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정서적 반응들의 집합체이다(Aquino, McFerran, & Laven, 2011). 도덕적 고양으로 생성되는 이타주의적인 동기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Haidt, 2003; Algoe & Haidt, 2009), 도덕적 고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를 희망하고 그들의 도덕적 고양을 촉발한 이타주의자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연구에서도(Schnall, Roper, & Fessler, 2010) 자기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인간애에 대해 더 낙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여러 실험연구에서 도덕적 고양된 사람들은 멘토십(Nakamura, Shernoff, & Hooker, 2009), 시민참여활동(Wray-Lake & Syvertsen, 2011), 다른 사람들 교육(Shernoff & Csikszentmihalyi, 2009)에 관여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Hogg & Blaylock, 2012).

도덕적 고양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가지게 되는 감사와는 다른 도덕정서이다. 관찰자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도덕적 선행을 직·간접으로 경험하였을 때 가지는 것이다. 도덕적 고양은 도덕적 선행을 직접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디오 클립과 같은 동영상 혹은 서술된 사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목격하였을 때도 발생한다. 따라서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덕적 사례를 직간접으로 접하도록 하고 양육태도, 반인종주의, 리더십과의 관계 등 다양한 맥락에서 실제로 도덕적 고양의 유발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성공하게 해준 멘토에게 감사하는 장면을 보고 엄마로서 통제집단에 비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도덕적 고양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도 있으며(Silvers & Haidt, 2008), 반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닌 백인들이 비디오 클립을 보고 긍정적인 도덕적 고양을 가지게 하여 흑인 자선기부와 같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연구도 있다(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윤리적인 리더십이 직원에게 긍정적인 도덕적 고양을

유발하여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Vianello, Galliani, & Haidt, 2010).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고양과 이타적 행동의 관계를 자기기록에 의해 분석한 결과 자신의 경험한 도덕적 고양 빈도가 이타적인 행동빈도와 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andies et al., 2009).

Cox(2010)는 도덕적 고양을 경험하고 난후 일주일 후와 3개월 후 도덕적 고양의 유지되는가에 대해 실험하였다. 도덕적 고양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생들이 봄방학동안 니카라과 자원봉사 여행에 참여하여 도덕적 고양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일주일 후와 3개월 후 이 봉사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한 결과 봉사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덕적 고양을 경험하였던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이 다시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감정이입, 외향성과 같은 인성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의 경향성은 이전 봉사여행에서 경험한 도덕적 고양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봉사프로그램을 접할 때 각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Diessner 등 (2013)은 도덕적 미(moral beauty)와 도덕정서 및 행동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실험결과 도덕적 미를 가지도록 격려되어진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선을 더 행하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형성을 하는 것이 도덕적 미를 지닌 사람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덕적 미를 지닌 사람일수록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에 대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프로그램이 도덕적 미와 연계한 도덕정서를 개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육과정측면에서 과학, 역사와 사회, 체육교과와 같은 교과교육에서 도덕적 미에 대한 행동을 포함하고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omson과 Siegel(2013)은 도덕적 행동, 도덕적 고양,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실험을 하였다. 첫 번째, 도덕적 행동의 수혜자 특성을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으로 구분하여 도덕적 행동을 목격했을 때와 도덕적 고양을 경험했을 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리고 기부행위, 비도덕적 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실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덕적 수혜자 특성이 아닌 다른 변인의 영향도 확인하기 위해 도덕행동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변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실험에서 전반적으로 도덕적 고양은 친사회적 행동을 극대화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의 한계로 도덕적 고양에 대한 최근 연구가 서구문화에 치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에 따라 도덕적 고양 경험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덕적 고양은 긍정적인 도덕정서로서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Algoe & Haidt, 2009; Thomson & Siegel, 2013), 연구주체로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지 긍정심리학 운동을 기점으로 10여년 정도에 불과하며, 최근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

한 변인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동양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고양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 소재 A 초등학교 3개 학급, 경기도 소재 B 여자 중학교 3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71명(남 38명, 여 33명), 중학교 2학년 111명이었다. 초등학교 3개 반은 실험을 위하여 긍정반, 긍정부정반, 부정반으로 한 학급씩 나누었으며, 중학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의 6학년의 3개 학급은 학급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교과성적, 도덕 수행평가에서 유사한 성취를 보인 학급들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는 도덕교과 성적이 지필시험이 아닌 수행평가만으로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성적을 부여하여 실제적인 변별력이 없다는 교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교과성적을 참고하였다. 중학교 2학년 3개 학급은 도덕교과 성적에서 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긍정반 72.2점, 긍정부정반 72.8점, 부정반 73.3점), 동일한 도덕교과가 가르치는 세 학급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 실험설계(Quasi experimental design)로 이루어졌다.

#### 2. 측정도구

도덕적 고양과 관련된 정서반응, 육체적 감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Algoe와 Haidt(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정서반응, 육체적 감각, 동기수준으로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ianello, Galliani, 그리고 Haidt(2010)는 검사를 타당화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연구 결과 세 영역의 평균표준화 문항 부하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서반응=.90, 육체적 감각=.70, 동기수준=.70). 그리고 세 영역간의 평균상관계수는 .53, 신뢰도계수는  $\alpha = .82$ 로 나타났다.

도덕적 고양에 대한 설문은 2개월 동안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사례분석행동을 하였을 때 경험한 정서반응, 육체적 감각, 동기수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서반응에 대한 선택문항은 “감사함”, “감동스러움”, “행복함”, “즐거움”, “존경스러움”, “좋은 영감을 줌”, “고무됨”, “사랑스러움”, “흥겨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문항 중에서 자신

이 경험한 가장 적합한 정서반응을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육체적 감각에 대한 선택문항은 “활기참”, “심장박동 증가”, “얼굴이 달아오름”, “가슴이 따듯해짐”, “목이 뻐”, “근육이완”, “근육긴장”, “소름이 돋음”, “웃음”, “가슴이 벅차오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문항 중에서 자신이 경험한 육체적 감각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기수준에 대한 설문 내용은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10개의 질문에 대해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사례를 분석한 후 자신이 경험한 동기수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동기수준은 5단계 평정척을 사용하였다.

### 3.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도덕적 고양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정규 도덕수업시간에 약 2개월간(6월 초에서 7월 말까지 7주간) 이루어졌으며, 도덕적 고양에 대한 측정은 기말고사 직전에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3개 학급, 중학교 3개 학급은 각각 긍정반, 부정반, 긍정부정반으로 구분하고, 각종 언론매체(인터넷 포함)의 도덕사례와 비도덕 사례 조합에 따라 반유형을 달리하여 도덕 및 비도덕 사례에 대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도덕 및 비도덕 사례는 도덕교과 과제로 학생들이 수집하고 과제양은 매주 2 개씩 총 7회에 걸쳐 14개의 도덕 혹은 비도덕 사례의 내용과 사례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분석 정리하여 A4 1장 분량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에 대해 실험에 참여한 교사는 정확히 사례를 구분하여 과제를 해왔는지 과제 검사를 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도덕적 사례와 함께 비도덕적 사례도 비교분석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덕적 판단에서 비도덕적 사례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도덕적 각성을 유발하고 행동을 동기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Haidt(2003b)의 연구가 있으며, 비도덕적 사례를 접하였을 때, 도덕적 혐오감, 분노에 의해 도덕 직관에 의해 판단을 하고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 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도덕적 고양에 유발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고양에 부정적 도덕 정서보다 친사회적이고 도덕적 행동을 더 동기화한다는 실험적 증거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도덕 혹은 비도덕 사례의 배합은 긍정반은 도덕적 사례 2개, 긍정부정반은 도덕적 사례 1개와 비도덕적 사례 1개, 부정반은 비도덕적인 사례 2개로 하였으며, 과제가 도덕 성적에 반영된다고

공지하여 성실하게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권장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였다. 반 유형별 정서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정서반응에서 존경에 대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비교검증을 하였다. 반 유형별 육체적 감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긍정부정반을 참조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으며, 긍정반과 부정반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Mann-Whitney U 비교검증을 하였다. 빈도수는 다중응답분석을 하였으며, 진한 숫자는 상위 비율(%) 2개 영역이다. 동기에 대한 반 유형별 차이검증은 일원변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은 Turkey 검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반 유형별 정서반응

도덕적 혹은 비도덕 사례를 제출한 반 유형별 정서반응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공히 긍정반과 긍정부정반과 달리 비도덕적 사례만을 접한 부정반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선택하지 않았다. 빈도수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부정반과 초등학교에서는 “존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학교에서는 “감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는 정서반응 중에서 “존경”에 대해 긍정반이 긍정부정반에 비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Mann-Whitney U 비교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633.0,  $Z=-1.991$ ). 즉, 긍정적인 도덕사례만을 경험한 집단이 부정적 사례를 약간이라도 접한 집단보다 정서반응에서 존경과 같은 긍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반 유형별 정서반응의 차이

정서 반응	초등학교(N=71)				중학교(N=111)			
	긍정 (N=25)	긍정부정 (N=21)	부정 (N=25)	$\chi^2$ (df=2)	긍정 (N=35)	긍정부정 (N=43)	부정 (N=33)	$\chi^2$ (df=2)
감사	12.50	12.00	.00	2.82	2.90	2.30	.00	0.89
감동	12.00	12.00	.00	2.75	22.90	25.60	.00	9.80**
행복	4.00	4.00	.00	0.86	8.60	4.70	.00	2.90
즐거움	.00	.00	.00	3.79	2.90	4.70	.00	1.54
존경	20.00	28.00	.00	6.63*	22.90	7.00	.00	10.62**
자랑	20.00	16.00	.00	4.51	5.70	7.00	.00	2.28
영감	8.00	20.00	.00	5.29	11.40	4.70	.00	4.41
고무	8.00	.00	.00	3.79	14.30	7.00	.00	5.19
사랑	.00	.00	.00	.00	.00	2.30	.00	1.59
흥겨움	4.00	.00	.00	1.86	.00	7.00	.00	4.87

주) 정서반응 수치는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 p<.05 \*\* p<.01

## 2. 반 유형별 육체적 감각

반유형별 육체적 감각에 대한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method)결과, 초등학교 긍정반은 활기(40.0%)와 가슴 따뜻함(32.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긍정부정반도 가슴 따뜻함(44.0%)과 활기(25%)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비도덕적 사례만을 과제로 제출한 부정반은 소름(52.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근육 긴장과 얼굴홍안을 다음으로 선택하여 긍정반, 긍정부정반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에서는 긍정반은 가슴 따뜻함(60.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웃음(37.1%)을 선택하였다. 긍정부정반도 가슴 따뜻함(40.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소름(32.6%)을 다음으로 선택하였다. 부정반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소름(69.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근육긴장(22.7%)을 두 번째로 선택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히 부정반에서 소름과 근육긴장과 같은 경험을 많이 선택한 이유는 비도덕적 사례가 육체적 긴장을 더 활성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lt;표 3&gt; 반 유형별 육체적 감각의 차이

육체적 감각	초등학교(N=71)			중학교(N=111)		
	긍정 (N=25)	긍정부정 (N=21)	부정 (N=25)	긍정 (N=35)	긍정부정 (N=43)	부정 (N=33)
활기	40.00a	24.00a	4.80b	25.70a	20.90a	3.70b
심박 증가	4.00a	8.00a	9.50a	.00a	4.70a	.00a
얼굴 홍안	4.00a	.00a	14.30a	.00a	.00a	3.70a
가슴 따뜻함	32.00a	44.00a	4.80b	60.00a	27.90b	.00c
목이 뻐	4.00a	4.00a	9.50a	2.90a	.00a	3.70a
근육이완	8.00a	.00a	4.80a	.00	.00	.00
근육긴장	4.00a	.00a	14.30a	.00a	.00a	22.70b
소름	20.00b	8.00b	52.40a	2.90b	39.50a	69.00a
웃음	28.00a	24.00ab	4.80b	37.10a	18.60a	3.70b
가슴 벅참	8.00a	20.00a	4.00a	17.10a	7.00a	7.40a

주) 알파벳 첨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벳이다. 진한 숫자는 상위 비율(%) 2개 영역이다.

반유형별 육체적 감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정반을 참조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히 육체적 감각 영역 중 “활기”, “가슴 따뜻함”, “소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웃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감각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감각 중 “가슴 따뜻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모든 반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름”은 초등학교 모든 반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감각으로 나타났다. 또한 “웃음”은 중학교의 긍정반과 부정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활기”에서 긍정반과 부정반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감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덕적 사례를 경험하였을 때는 긍정적인 정서반응과 육체적 감각을 가지지만, 비도덕적 사례를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육체적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반유형별 육체적인 감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육체적 감각	초등학교(N=71)			중학교(N=111)		
	긍정 (N=25)	긍정부정 (N=25)	부정 (N=21)	긍정 (N=35)	긍정부정 (N=43)	부정 (N=33)
활기	5.52**	2.67	5.94*	4.89*	3.89*	4.90
심박 증가	.55	.03	0.54	.00	.00	.00
얼굴 홍안	1.34	.00	1.34	.00	.00	.00
가슴 따뜻함	9.81**	5.65*	9.81**	13.03***	5.52*	17.12***
목이 뻐	.54	.54	0.80	.00	.00	.00
근육이완	.19	.00	0.19	.00	.00	.00
근육긴장	.13	.00	0.13	.00	.00	.00
소름	4.98*	8.77**	10.49**	13.54***	3.26	14.38**
웃음	3.37	2.67	3.41	7.49***	3.34	9.04*
가슴 벅참	2.74	1.99	0.19	1.85	.00	2.81

주) 표의 수치는 Wald 값임. \*: p<.05, \*\* p<.01, \*\*\* p<.001

### 3. 반 유형별 정서영역별 동기수준

도덕적 사례 긍정반, 도덕적 비도덕적 사례가 공존하는 긍정부정반, 비도덕적 사례만을 분석한 부정반의 동기수준에 대해 일원 변산 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을 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히 “많은 시간을 같이하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에 대한 동기수준에서 긍정반과 긍정부정반이 비도덕적 사례만을 접한 부정반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와 “ 나는 성공하고 싶다”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부정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긍정반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에 반유형별 동기수준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도덕적 사례만으로도 긍정적 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초등학교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부정반의 동기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모든 영역에서 긍정반이 부정반보다 동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례보다 도덕적인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긍정정인 도덕적 고양을 유발하여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참조).

&lt;표 5&gt; 반 유형별 동기에 대한 차이검증

동기수준	초등학교(N=71)			중학교(N=111)		
	긍정 (N=25)	긍정부정 (N=21)	부정 (N=25)	긍정 (N=35)	긍정부정 (N=43)	부정 (N=33)
많은 시간....	2.92a	3.36a	1.33b	3.23a	2.60b	1.80c
좋은 사람...	4.00b	4.04b	4.86a	4.03a	3.80ab	3.40b
다른 사람...	3.80a	3.52a	4.24a	3.83a	3.42ab	2.91b
미래 책임...	3.04a	3.32a	1.71b	3.23a	2.70b	1.91c
도움 주고...	3.16a	3.28a	1.81b	2.97a	2.74a	2.06b
부정적인 말...	2.36b	3.66a	2.91ab	2.14a	2.60a	2.66a
성공희망...	3.96a	4.44a	4.71a	4.40a	3.86ab	3.54b
타인 알릴...	3.52a	3.52a	3.71a	3.83a	3.16b	2.61b
새로운 사람...	3.72a	3.56a	4.38a	3.66a	3.37a	3.36a

주) 알파벳 첨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벳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덕적 고양에 대한 준실험적 연구로 도덕적 사례 분석행동이 긍정적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키고 도덕적 행동 혹은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첫째,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가 도덕적 고양의 증진에서 어떠한 정서적 반응의 차이를 발생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가 도덕적 고양과 관련된 육체적 감각반응에서 어떠한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가 도덕적 혹은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세 가지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첫째, 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도덕적 고양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가 더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긍정반이 부정반과 긍정부정반에 비해 도덕적 사례에 대해 “존경”을 한다는 정서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감동적”이라는 정서적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Haidt, 2000; Schnall, Roper, & Fessler, 2010)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시간에 비도덕적 사례보다는 도덕적 사례를 더 많이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

양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도덕적 고양의 일반적 특성인 “가슴 따뜻함”과 “활기” 같은 육체적 감각반응이 더 많이 생성되고, 비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소름”과 같은 육체적 감각반응이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긍정반에서는 도덕적 고양의 대표적인 육체적 감각반응인 “가슴이 따뜻하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반에서는 “소름”과 같은 육체적 감각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가 혼재된 긍정부정반도 “소름”과 같은 긍정반에 비해 높은 육체적 감각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가슴 따뜻함”과 “소름”은 긍정반, 긍정부정반, 부정반의 구별되는 육체적 감각반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가슴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 육체적 감각반응을 더 유발하며, 비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소름”과 같은 육체적 감각반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Algoe & Haidt, 2009; 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Haidt, 2000; Schnall, Roper, & Fessler, 2010)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덕적 고양의 육체적 감각반응과 일치하는 것이며, 도덕교육에서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재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름”과 같은 육체적 감각반응이 부정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중학교 긍정부정반을 제외하고 실험대상 모든 반에서 유의미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Freeman, Aquino, 그리고 McFerran(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름”이 비도덕적 사례만을 접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육체적 감각 반응이 아니라 도덕적 고양을 경험할 때도 나타나는 긍정적 육체적 감각반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소름”을 비도덕적 사례를 만을 경험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육체적 감각반응이지만, 긍정적 도덕 정서 혹은 부정적인 도덕 정서와 관련된 도덕 정서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름”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도덕 정서인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비도덕적 사례보다 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향후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사례를 많이 접한 긍정반이 비도덕 사례를 많이 접한 부정반에 비해 도덕적 사례를 모방하거나 추종하는 동기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Cox, 2010; Diessner et al., 2013; 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Landies et al., 2009; Schnall, Roper, & Fessler, 2010; Thomson & Siegel, 2013; Vianello, Galliani, & Haidt, 2010) 도덕적 고양이 이타주의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중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부정반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화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이 영역에 반응을 할 때, 지난 2개월 동안 접한 비도덕적 사례에 대한 각성으로 이와 같은 반응 나왔을 수도 있으며, 비도덕적 사례와는 상관없이 이 설문 자체에 대한 자신의 희망반응이라고 보여진다. 그

러나 Gray와 Wegner(2011)의 연구에서 악인에 의해 분노(anger)와 혐오감(disgust)과 같은 도덕 정서가 유발된다는 보았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사례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Haidt(2003b)도 비도덕적 사례가 도덕 직관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 수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도덕적 사례보다는 도덕적 사례가 긍정적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키며,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도덕정서로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도덕교육과 연계하여 도덕적 고양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적 고양은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도덕정서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교육에서 도덕정서가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Graham, Haidt, & Rimm-Kaufman, 2008)는 점에서 긍정적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길러주는 교육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덕적 고양은 도덕적 미에 대한 반응으로 이타주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고양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은 Haidt(2000)의 이론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최근 Thomson과 Siegel(2013)과 Diessner 등(2013)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의 실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특히, 고양에 대한 가설적 개념을 제시한 Haidt(2003a)는 도덕교육에서 Kohlberg식의 전통적인 도덕적 추론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프로그램보다 고양과 같은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강화하고 유발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프로그램에서 도덕적 고양과 같은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험적 상황이지만 도덕수업시간에 매주 과제로 도덕적 사례와 비도덕적 사례를 조사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조건은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업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도덕적 고양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단순히 도덕교과만이 아닌 교과간 연계적인 도덕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Diessner 등(2013)은 교육과정측면에서 과학, 역사와 사회, 체육교과와 같은 교과교육에서 도덕적 미에 대한 행동을 포함하고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시간에는 도덕적 선을 행한 과학자에 대한 사례, 역사와 사회시간에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지도자 사례, 체육시간에는 선행을 행한 운동선수 사례 등 교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사례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단순히 도덕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연계적으로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연구에서 허구적인 사실만으로도 도덕정서를 자극할 수 있으며(Aquino, McFerran, & Laven, 2011), 한번 경험한 도덕적 고양은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주어지면 도덕적 고양을 각

성하게 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Cox, 2010). 이러한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이 도덕적 고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적인 도덕사례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도덕적 고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덕적 사례를 연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목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고양을 길러주기 위한 도덕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도덕적 고양의 정서반응, 육체적 감각, 동기화 수준에서 서구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Algoe & Haidt, 2009; Cox, 2010, Schnall, Roper, & Fessler, 2010; Vianello, Galliani, & Haidt, 2010)와 같은 유사한 결과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하고 심층적이며,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homson과 Siegel(2013)도 후속연구에서 문화적 속성을 반영한 도덕적 고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Tangney, Stuewig, 그리고 Mashek(2007)가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도덕적 표준은 범 우주적인 표준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표준도 있다. 본 연구는 도덕적 고양에 대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다. 즉, 연구대상이 서양인이 아닌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매우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고양을 증진하기 위한 도덕적 사례는 테레사 수녀 뉴스에 대한 일본인, 인도인, 미국인의 반응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할 수도 있지만 문화에 따라 고양을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도덕적 사례가 다를 수도 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서양인에게 도덕적 고양을 유발하는 도덕적 사례가 동양인에게는 효과적으로 도덕적 고양을 유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서양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 더 선호하는 도덕적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는 서양인에게는 익숙지 않은 도덕적 사례이다. Haidt(2001)가 언급한 것처럼 인도 아동에게 머리와 발은 순수와 오염의 육체적인 구분이고, 존경하는 사람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접촉하는 행위를 통해 상징적인 존경을 하지만, 미국 아동에게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였을 때 의식을 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심오한 인지적, 정서적으로 내재화된 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문화적인 도덕적 지식은 비언어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내재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덕적 고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덕적 사례를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초중등학교에서 도덕적 고양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중학교 2학년도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비교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집을 좀 더 확대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들의 연구대상 표집수를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집단 간 비교의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학급수를 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험기간을 한 학기로 하여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습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도덕적 교양을 길러주기 위해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양을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도덕적 사례에 대한 심층적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양을 유발하는 다양한 도덕적 사례에 대한 문화적인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적인 속성을 반영하여 교양을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도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goe, S. B., & Haidt, J. (2009). Witnessing excellence in action: the 'other-praising' emotions of elevation, gratitude, and admira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2), 105-127.
- Aquino, K., McFerran, B., & Laven, M. (2011). Moral identity and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in response to act of uncommon goo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4), 703-718.
- Berry, T., & Eddy, R. M. (2008). Consequences of no child left behind for educational evaluation.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11*71-7.
- Cox, K. S. (2010). Elevation predicts domain-specific volunteerism 3 months late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5), 333-341.
- Diessnera, R., Iyerb, R., Smithc, M. M., & Haidt, J. (2013). Who engages with moral beauty.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2), 139-163.
- Englander, Z. A., Haidt, J., & Morris, J. P. (2012). Neural basis of moral elevation demonstrated through inter-subject synchronization of cortical activity during free-viewing. *PLoS ONE, 7*(6). e39384.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and Treatment, 3, 1*.
- Freeman, D., Aquino, K., & McFerran, B. (2009). Overcoming beneficiary race as an impediment to charitable donatio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and donatio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72-84.
- Graham, J., Haidt, J., & Rimm-Kaufman, S. E. (2008). Ideology and intuition in moral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3), 269-286.
- Gray, K., & Wegner, D. M. (2011). Dimensions and moral emotions. *Emotion Review, 3*(3), 258-260.
- Haidt, J. (2000). The positive emotion of eleva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3*, article 3.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idt, J. (2003a). Elevation and the positive psychology of morality. In C. L.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life well-lived* (pp. 275-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idt, J. (2003b). The moral emotions.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sciences*. (pp. 852-8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idt, J. (2006). *The happiness hypothesis: finding modern truth in ancient wisdom*. New York, NY: Basic Books.
- Hogg, M., & Blaylock, D. (Eds.). (2012). *Extremism and the psychology of uncertainty*. Malden, MA: Wiley-Blackwell.
- Immordino-Yang, M. H. (2011). Me, my "self" and you: Neuropsychological relations between social emotion, self-awareness, and morality. *emotion review*, 3(3), 313-315.
- Immordino-Yang, M. H., & Damasio, A. R. (2007). We feel, therefore we learn: The relevance of affective and social neuroscience to education. *Mind, Brain and Education*, 1(1), 3-10.
- Immordino-Yang, M. H., McColl, A., Damasio, H., & Damasio, A. (2009). Neural correlates of admiration and compassio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19), 8021-8026.
- Immordino-Yang, M. H., & Sylvan, L. (2010). Admiration for virtue: Neuroscientific perspectives on a motivating emo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2), 110-115.
- Keltner, D., & Haidt, J. (2003). Approaching awe, a moral, spiritual, and aesthetic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7(2), 297-314.
-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819-834.
- Landis, S. K., Sherman, M. F., Piedmont, R. L., Kirkhart, M. W., Rapp, E. M., & Bike, D. H. (2009). The relation between elevation and self-reported prosocial behavior: Incremental validity of elevation can induce nursing, *Emotion*, 8, 291-295.
- Nakamura, J., Shernoff, D. J., & Hooker, C. H. (2009). *Good mentoring: Fostering excellent practice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chnall, S., & Roper, J. (2012). Elevation puts moral virtues into ac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3), 373-378.
- Schnall, S., Roper, J., & Fessler, M.T. (2010). Elevation leads to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3), 315-320.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1999).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73, 902-922.
- Sherhoff, D. J., & Csikszentmihalyi, M. (2009). Flow in schools: Cultivating engaged learners and optimal learning environments. In R. Gilman, E. Huebn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pp. 131-145). New York, NY: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Silvers, J.A., & Haidt, J. (2008). Moral elevation can induce nursing. *Emotion*, 8, 291-295.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J.(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homson, A. L., & Siegel, J. T. (2013). A moral act, ele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Moderators of moralit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1), 50-64.
- Vianello, M., Galliani, E. M., & Haidt, J. (2010). Elevation at work: The organizational effects of leaders' moral excelle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 390-411.
- Wray-Lake, L., & Syversten, A. (2011). The developmental roots of social responsibil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C. Flanagan & B. Christens (Eds.), *Youth civic development: Work at the cutting edg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34, (pp. 11-25). Hoboken, NJ: Wiley.

\* 논문접수 2014년 2월 11일 / 1차 심사 2014년 3월 10일 / 2차 심사 2014년 4월 28일 / 게재승인 2014년 4월 28일

\* 강인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igdp@cau.ac.kr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tical Behavior of Moral Case and Moral Elevation in Youth

Kang, In-gu\*

Elevation is a positive moral emotion that elicited by witnessing acts of virtue. This study examin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witnessing a moral deed and experiencing elev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of an elementary school (3 class, N=71) and a girl's middle school (3 class, N=111). Each of 3 clas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as a positive class which witnessing only moral act, a positive-negative class which witnessing a moral act and immoral act, and a negative class which witnessing only immoral act. The result showed that a positive and a positive-negative class were higher elevated than a negative class, and elevation motivated moral or prosocial behavior. This study suggested that educational materials and methods of moral elev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cated in the moral education program.

Key words: elevation, moral elevation, moral emotion, moral psychology, moral education, positive moral emotion